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2면	강릉시 농업인단체장 합동 이·취임식 열려	1
江原日報	01면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전 세계에 소개	1
江原日報	04면	도의회 의정비심의위 공청회 '50만원 인상' 찬반 팽팽	2
G1방송	온라인	의정비 인상 공청회..여론 수렴 한계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원 의정비 공청회...시민 의견은 실종	4
강원도민일보	02면	"재정위기 속 주민 부담" vs "의원 전문성 강화 도움"	5
江原日報	14면	"도계읍 초교 통합·고교 특성화고 키워야"	5
강원도민일보	26면	도의회 강원2024 지원 특위 강릉 방문	6
江原日報	21면	"세계적 청소년축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6
CBS	온라인	강원도의회 동계청소년올림픽 특위 '대회 성공' 의정역량 ...	7
연합뉴스		[청소년올림픽] 경기장 찾은 강원도의회, 선수 응원.직원 ...	8
강원도민일보	27면	최재민 도의원 국힘 공약대전 우수상 수상	9
강원도민일보	19면	고성군 청년상회 발대식	9
江原日報	21면	국민의힘 공약 대전서 최재민 도의원 우수상	9
江原日報	06면	"강원자치도 발전 위해 머뭇거릴 시간 없다"	10
강원도민일보	13면	시 여협 정기총회·신년회	10
江原日報		홍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및 남.여 읍면의용소방대장 ...	11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학습 공백 없는 겨울방학 보내려면	12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13
江原日報	21면	道-KTC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협력	14
강원도민일보	14면	강원2024 응원전 기업·사회단체 동참	15
江原日報	12면	강릉 '바다열차' 대신 '산타열차' 즐겨요	15
강원도민일보	07면	한달도 안돼 또 가스누출...평창 'LPG 폭발사고' 동일업체	16
江原日報	05면	평창 폭발사고 업체서 또 가스 누출	16
KBS 강릉	온라인	무상교복 지원금 6.9% 인상...진단·처방 시급	17
江原日報	01면	썰매 성지 평창에 IBSF '亞 지사' 설립	18
江原日報	02면	썰매 성지 평창에 IBSF '亞 지사' 설립	19

강원도민일보	15면	'순백의 감동 속으로' 태백 눈축제 26일 개막	19
강원도민일보	07면	'빙하기 왔나' 수도 얼어 터지고 차량방전 긴급출동 속출	20
江原日報	03면	“북유럽보다 더 추워” 한파에 외국인 관광객 깜짝	20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아파트·주택 화재 불안 해소를	21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장단점 살펴야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공공 발주 유찰 속출, 공사비 현실화돼야 한다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전통시장 살릴 방안은	24

2024 01 24 ()

江原日報

12



◇강릉시 농업인단체장 합동 이·취임식이 23일 강릉농협에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흥규 시장, 김기영 시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시 농업인단체장

합동 이·취임식 열려

【강릉】강릉시 농업인단체장 합동 이·취임식이 23일 강릉농협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농촌지도자 강릉시연합회 제12대 김성기 회장이 이임하고 제13대 조병주 회장이 취임했다. 한국생활개선 강릉시연합회에서는 제14대 김영숙 회장이 제13대 최순규 회장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강릉시4-H연합회는 제15대 이경준 회장이 제16대 남우성 회장에게 자리를 넘겼다.

정익기기자 igjung@

2024 01 24 ()

01

江原日報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전 세계에 소개

道 오늘 IOC 부위원장 등 초청
월정사·실록박물관 등 둘러봐

강원특별자치도가 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110년 만에 평창으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소개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오후 6시부터 존 코츠 IOC 수석 부위원장과 니콜 호버츠 부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IOC 위원을 평창 오대산 월정사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으로 초대한다. 강원자치도 대

표단으로는 김 지사를 비롯해 권혁열 도의장, 심오섭 도의회 동계특위 위원장, 심재국 평창군수,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정광열 경제부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IOC 위원들은 이날 가장 먼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돌아본 후 만월교를 통해 월정사 경내로 입장한다. 이어 팔각구층석탑에서 탑돌이를 시연하며 각자 소원을 빌게 된다. IOC 위원들을 위한 환영 만찬은 대법륜전에서 진행되며 월정사에서 준비한 사찰식이 제공된다.

강원2024추재단=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 01 24 ()

04

도의회 의정비심의위 공청회

‘50만원 인상’ 찬반 팽팽

강원자치도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23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홀에서 열려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이날 공청회는 2024~2026년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

인상 찬성 측은 21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사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수준으로 최하위라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인상 반대 측은 도의원 중 절반 가까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점, 도민들에게 어떤 활동을 해서 의정활동비를 썼는지부터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가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하면 도의회에서는 지급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이현정기자

2024 01 23 ()

G1방송

의정비 인상 공청회..여론 수렴 한계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앵커]

남)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 찬반 논쟁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 앞서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 4명은 인상에 대한 열띤 찬반 의견을 밝혔습니다.

찬성 측은 물가 상승과 인재의 의회 참여 동기 부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원들의 잘못된 의정 활동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의 처우라든가 실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 합니다."

반대 측은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상황에 인상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6% 이상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비에는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주민공청회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방청객이 질문하려고 하자,

"방청석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지를 당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내도 될까요? 없으시죠? 찬성하죠? 동의하시죠? 재청하시죠?"

◀클로징▶

"형식적이었다는 비판 속에 공청회를 마친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2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2024 01 23 ()

KBS 춘천

강원도의원 의정비 공청회...시민 의견은 실종



[앵커]

강원도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오늘(23일)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정해진 토론만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원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한 자립니다.

핵심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월정수당 포함 연봉 총액은 연 12%가 올라 6,100만 원이 됩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들의 찬반토론이 진행됩니다.

찬성 측은 강원도의원의 의정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안지연/변호사 :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 할 여러가지 중대한 일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반대 측은 인상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맞섭니다.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리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 진행된 방청객 의견 제시 시간.

두세 번 질문에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자 70분으로 예정됐던 방청객 토론을 몇 분만에 끝내 버렸습니다.

[이건실/강원도의원의정비심의위원장 : "동의하시죠? 토론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접수된 시민 의견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율된 찬반 토론만 진행했을 뿐 일반 시민 방청객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정비 공청회가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고순정 flyhigh@kb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02

“재정위기 속 주민 부담” vs “의원 전문성 강화 도움”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공청회

150만원→200만원 상향 추진

인상 적절성 놓고 찬반 엇갈려

의정비심의위 내달 1일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인상찬성 측은 ‘안정적 의정환경’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긴축재정 기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춘천 소재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150만원→200만원)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인상찬성 측 토론 위원으로는 안지연 변호사와 김명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장이 참석했고, 반대 측 토론 위원으로는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동철 춘천 시민사회네트워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 공청회가 23일 춘천 디자인진흥원에서 이진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서영정과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공청회는 윤수정 위원의 반대 토론으로 시작됐다. 윤 위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은 데다,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안 편성

이 끝난 시점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서 부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찬성 측 김명신 위원은 “전국 광역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중에도 강원도는 일부 향상되는 등 재정자립

도가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이 의원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 측 오동철 위원은 “의정활동비는 의원 급여가 아니라, 연구활동 등 복

적에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떤 의정활동을 했고,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썼다는 등의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 위원은 “도의원 중 절반 가까이 겸직이 있고, 이 가운데 다수가 급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안지연 위원은 “강원도는 면적 대비 의원수가 부족해 시간과 비용 소모가 극심하다”며 의정비 인상을 찬성했다. 또,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의 회의가 도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각도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필요하다”며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하길 바라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민의 몫”이라고 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실)는 이날 공청회 내용과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 2차 회의를 연다.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는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설화

2024 01 24 ()

14

江原日報

“도계읍 초교 통합·고교 특성화고 키워야”

삼척 폐광지 주민들 구성 ‘미래교육환경개선위’ 설문
초교 통합 ‘97%’ 찬성 ... 고교 통합 반대 ‘79%’ 달해

【삼척】삼척시 도계읍 소재 초등학교는 통합,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폐광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미래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도계초, 장원초, 흥전초 학부모들과 이장협의회, 개발자문회의, 총동문회 등 주민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초교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의 97%(467명)가 ‘적극 찬성 및 찬성’을 선택했다. 찬성을 택한 이유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 개선, 학교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학교공동체 활성화, 도계읍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조사됐다.

고교 통합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와 적극 반대’가 79.4%(378명)였고, 반대 이유로

는 정보고의 특성화고로 발전(60.7%)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정보고를 특성화고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기업의 취업 보장, 학비 및 기숙사비 지원, 졸업 후 창업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지원, 지역연계 차별화된 전공 개설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래교육환경개선위는 이번 설문결과를 조성운(교육위) 도의원에게 전달하고, 도교육청의 학교통합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만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26



도의회 강원2024 지원 특위 강릉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오섭)가 23일 평창 방면지휘본부와 강릉 종합상황실을 각각 찾아 소방본부 직원들과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4 01 24 ()

21

“세계적 청소년축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도의회 강원2024 지원특위
선수단 응원·방한대책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지원특위)가 23일 강릉, 평창 등을 찾아 참가 선수들을 응원하고 관중 방한 대책 등을 점검했다.

지원특위는 이날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찾아 관중들의 방한 대책과 이동 동선, 대중교통 상황을 파악했다. 또 자원봉사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대회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오섭)가 23일 강릉, 평창 등을 찾아 선수들과 자원봉사자 등을 응원하고 방한대책 등을 점검했다.

강원자치도에 주문했다.

지원특위는 이어 평창 방면지휘본

부, 강릉 종합상황실·총괄지휘본부를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루지 경기 금메달결정전, 컬링 경기 등도 관람,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심오섭 지원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해 준 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회, 도청,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4 01 23 ()

CBS

강원도의회 동계청소년올림픽 특위 '대회 성공' 의정역량 집중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특위, 23일 평창-강릉 대회 현장 방문
선수 응원 및 직원 격려, 관중 방한대책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동계청소년올림픽 특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평창-강릉 등 경기장을 찾아 대회 성공 지원에 나섰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심오섭 위원장)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공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위는 23일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찾아 루지 경기 금메달결정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관중 방한대책과 자원봉사자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현지에서 활동 중인 소방본부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릉 종합상황실과 총괄지휘본부로 이동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뒤 컬링경기장을 찾아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심오섭 위원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로 국민과 세계인이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공적으로 축제를 위해 노력해 준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도청, 조직위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청소년올림픽] 경기장 찾은 강원도의회, 선수 응원.직원 격려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 찾은 강원도의원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23일 대회 참가 선수들을 응원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특위는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찾아 루지 경기 금메달결정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 강릉 종합상황실과 총괄 지휘 본부를 방문해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컬링경기장도 찾아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살폈다.

심오섭 위원장은 "성공적인 청소년 축제를 위해 노력해 준 도의회, 도청,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특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공무원 격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민일보

최재민 도의원 국힘 공약대전 우수상 수상

버스정류장 야간 승차알림 제안

최재민(원주·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민플러스(+)’ 공약대전에서 지방의원부



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 시내버스 정류장 야간 승차알림 설치’를 제안해 우수공약에 선정됐다. 야간 운행 중인 버스

2024 01 24 ()

27

가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을 놓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전광판 등 알림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다. 그는 “읍, 면 단위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 버스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있다”며 “전국마을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 01 24 ()

21

국민의힘 공약 대전서

최재민 도의원 우수상

국민의힘이 최근 실시한 ‘국민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최재민(원주·사진) 강



원특별자치도의회가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3일 최 의원의 ‘ 시내버스 정류장 야간 승차알림 등 설치 정책’을 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당선작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항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19



고성군 청년상회 발대식 고성군 청년상회 발대식 및 간담회가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김창식 청년상회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군 청대회의실에서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2024 01 24 ()

江原日報

06

“강원자치도 발전 위해 머뭇거릴 시간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지방시대 발전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가 23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민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회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특히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의료시스템, 특히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상황”이라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법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장은 의료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취약한 지역의 원격의료 시행 등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할 만큼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도 “지역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action plan)이 없다면 장밋빛 미래에 불과할 뿐”이라며 “지역에 맞는 클러스터를 조성해 주민들이 정주하게 만드는 등 비전 제시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학수 도 지방시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산업 등 먹고 살 거리를 찾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중앙부처 관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민 의견수렴’ 토론회

의료시스템 법제혁신 등 속도감 있고 과감한 정책 필요 한목소리

계자들이 강원도를 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고 당부했고,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주요 사업들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방시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욱 도의회 교육부위원장, 박기관 상지대 교수,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

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고,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했다.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토론회와 주민 의견 수렴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검토를 거쳐 올해 강원자치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현정기자 together@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민 의견수렴’ 토론회가 23일 강원자치도청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황학수 도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를 비롯한 위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13



시 여협 정기총회·신년회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원은향)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원강수 시장, 원은향 회장을 비롯한 회원단체 회장, 하석균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1 23 ()

江原日報

홍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및 남.여 읍면의 용소방대장 이 취임식



홍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는 23일 홍천 크리스탈컨벤션웨딩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김숙자 홍천소방서장,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김광수·용준식·황경화 홍천군의원, 김두남 강원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장 및 남·여 읍면의용소방대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상호 홍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윤준용 화촌의용소방대장, 김종원 내촌의용소방대장, 김은녀 내촌여성의용소방대장, 김기환 서석의용소방대장, 최승국 서면의용소방대장, 전석범 내면의용소방대장, 심윤보 남면의용소방대 시동지역대장 등이 이임했다. 또 조덕연 홍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신상욱 홍천읍의용소방대장, 서동수 화촌의용소방대장, 이창희 내촌의용소방대장, 박양순 내촌여성의용소방대장, 박계하 서석의용소방대장, 이병교 서면의용소방대장, 김석만 내면의용소방대장, 이명행 남면의용소방대 시동지역대장 등은 취임했다.

이임 의용소방대장들은 "새롭게 취임한 신임 대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록 의용소방대장이라는 직위는 내려놓지만 언제나 소방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연 홍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취임하게 돼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원들과 힘을 합쳐 홍천군의 안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헌신하는 이임 대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새롭게 취임한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江原日報

2024 01 24 ()

19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졸업식과 종업식을 마치고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은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쉽 없이 달려온 학생들에게 재충전의 좋은 기회다.

학교생활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다양한 취미활동, 체험활동, 가족과의 대화나 여행, 부족한 교과에 대한 보충학습 등을 실시할 기회가 시간이 되기도 한다. 여름방학과 달리 겨울방학은 50여일이 넘는다. 자칫 학습의 공백 기간이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학 기간은 철저하게 학생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습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학년과 학년, 학교와 학교를 잇는 이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로도 다양한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기대보다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부는 학생들에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다.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강원포럼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위 부위원장



지난해 말 교육부에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유치원·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신성적의 5등급 축소에 따른 변별력 약화로 수능 성적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학교 공부는 학점제에 따라 학생이 선택한 과목별로 실시되지만, 수학능력시

작성되어야 한다.

방학 중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교육청의 지원으로 학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부족한 교과나 영역을

학습 공백 없는 겨울방학 보내려면

힘은 통합교과로 치르게 된다. 따라서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기본 학습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학교 내신성적 관리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학습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입시에서도 지역거점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서 수능기준 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입시제도의 개편안 속에서도 변하

보완하기 위해 학원 수강이나 개인과 외를 받는 것도 학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다음 학년이나 다음 학교에서의 적응력을 좌우하게 된다. 학과 공부에서도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으며 장차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방학 기간을 공부만 하며 보내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학기 중에 하기 어려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도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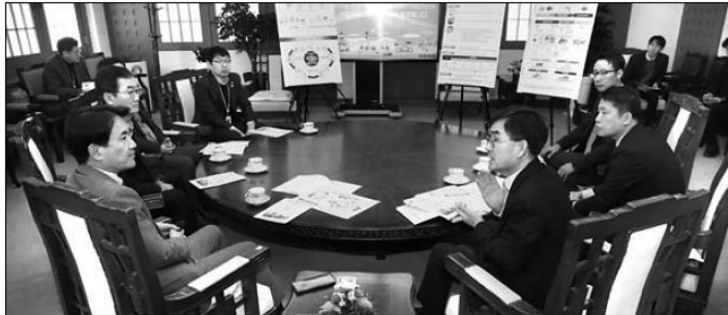
심오섭 도 라만찬에 참석한다.

의회 사회
문화위 부
위원장은
24일 오후6시 30분 국립조선왕
조실록박물관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리는
강원2024국제올림픽
위원회 초청 월정사갈

江原日報

2024 01 24 ()

21



◇김진태 지사와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및 관계자 등은 23일 강원자치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道-KTC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협력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김진태 지사는 23일 강원자치도청에서 안성일 KTC원장 및 관계자 등과 만나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예산이 확보된 ‘미래차전

장부품·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의 성공적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일 원장은 “강원자치도가 중점 추진 중인 AI반도체, 센서 등에 평가 인프라 확장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김진태 지사는 “KTC가 기업들의 강원권 투자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14

강원2024 응원전 기업·사회단체 동참



지역 단체에매 관람 잇따라
시민 “경기 실감나또 예매할 것”
환송 캠페인·안내 봉사 활동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강릉지역 기업, 사회단체 등이 단체 관람에 나서는 등 지역 사회 응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3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 관람을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이 선수들을 향해 응원 함성을 내지르고, 박수를 보내며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특히 경기장에는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강



강릉시민 등은 23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이진규

릉 시민들의 발걸음이 잇따랐다. 시민 최모(40·교1동) 씨는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한 번 짚은 방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장을 찾았다”며 “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TV로만 보던 경기를 실제로 보여주니 너무 좋아해 다른 경기

들도 예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내 기업, 사회단체들의 응원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영동예코발전본부(본부장 김양범)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오후 시간대 열리는 컬링, 하키 등 올림픽 경기를 단체

관람한다. 매일 25명씩 총 200여명의 직원들이 올림픽이 끝날때까지 응원 사격을 펼친다.

또한 라시멘트(대표 임경태)는 오는 30일과 2월 1일 열리는 피겨 경기를 단체 관람하고, 강릉문화원(원장 김화목)은 24일 쇼트트랙과 아이스하키 경기 단체 응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스마일강릉(이사장 김준래) 회원들은 오는 27일 아이스하키 경기를 단체 관람할 예정이며, 지난 14일부터 KTX 강릉역에서 올림픽 방문객 환영 및 환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인 강릉 동사모(회장 윤영식) 회원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 부근에서 경기장 및 관공지 안내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이연재

江原日報

2024 01 24 ()

12

강릉 ‘바다열차’ 대신 ‘산타열차’ 즐겨요

운행 중단 빈자리 채우며 ‘전석매진’ 관광객 몰려
강릉~동해 ‘누리로’도 동해 바다 감상 인기몰이

【강릉】동해산타열차와 누리로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끝으로 운행을 멈춘 동해안 바다열차의 빈자리를 채우며 대체 관광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2일 찾은 강릉역은 동해산타열차를 타기 위한 가족 단위 승객들로 붐볐다. 어린이 승객들은 산타가 그려진 열차

외관을 보며 해맑은 웃음을 보였다. 부모들 역시 아이를 위해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동해산타열차 183석은 전석 매진됐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3호차는 자유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두 자녀와 함께 탑승한 이후인(49·삼척시 교동)씨는 “기차 내부가 예쁘게 꾸며져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말했다.

강릉~동해를 오가는 누리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동해산타열차와 마찬가지로 바다를 볼 수 있으며, 소요시간이 43분 안팎에 불과해 짧은 시간에 동해안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있다.

예약도 사실상 꽉 찬 상태다. 코레일 예매사이트에 따르면

이 두 열차는 이달 말까지 예매가 90% 이상 이뤄졌다.

바다열차 운행 중단 이후에는 산타열차 예매 문의가 이전에 비해 20~30%가량 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동해산타열차와 누리로는 과거 동해안 바다열차와 동일한 구간을 달려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호준기자 gwhojun@

2024 01 24 ()

강원도민일보

07

한달도 안돼 또 가스누출...평창 'LPG 폭발사고' 동일업체

진부면서 신고접수 '악몽' 되풀이
재난안전문자 발송에 주민 불안
업체, 차량노후·한파 원인 해명

지난 1일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평창에서 또다시 LPG 가스가 누출됐다. 더욱이 같은 LPG 벌크로리 운영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49분쯤 평창군 진부면 LPG충전소에서 가스누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되지 소방과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은 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소방당국 등은 현장에서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조치



23일 오전 10시49분쯤 평창군 진부면 속사재길 292에 위치한 LPG충전소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 소방과 가스공사 직원 등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신현태

를 진행하고, 벌크로리에 옮긴 LPG를 저장탱크에 다시 옮긴 뒤 가스 누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접수했다.

이번 사고현장에 나와있던 LPG 벌크로리 차량은 지난 1일 발생한 장평리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업체의 차량인 것

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발생한 사고의 경우 경기 양평에서 온 차량이고, 이번의 경우 경기 가평에서 가스 충전소를 위해 평창을 찾았다. 소방당국은 벌크로리 차량이 가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가스관에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LPG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재난안전문자까지 잇따라 전송되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인근지역 주민 김모(63)씨는 "장평리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가스 누출과 주민대피 안전안내 문자가 와 순간 당황했다"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다. 23일 해당 업체 관계자는 차량 노후와 '한파'가 원인이라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날이 추워지다보니 가스 수요가 급증해 충전을 위해 가평의 차량이 평창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현장 직원에 따르면 차량이 다소 노후했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보니 연결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이재민 16명이 발생한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현장에서 가스를 옮기던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는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강원경찰청 평창가스폭발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상, 약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충전소 운영 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신현태·신재훈

2024 01 24 ()

江原日報

05

평창 폭발사고 업체서 또 가스 누출

벌크로리 가스 주입중 발생
도로 통제·긴급 대피 '아찔'
조사 착수... 군 "엄중 조치"

속보=올해 초 LPG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평창에서 또다시 LPG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10시49분께 평창군 진부면 속사재길 LPG충전소에서 가스가 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평창군과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은 소방차 7대, 경찰차 3대 등 긴급 출동하는 한편 인근 1km의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대피를 통보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6톤 용량 벌크로리에서 가스 누출을 확인, 막음장치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소방당국은 "누출량이 많지 않아 안전조치를 시급히 시행했으며 가스

공사 관계자들과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가스가 누출된 차량은 지난 1일 진부면 LPG 폭발사고를 일으킨 A업체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서 또다시 문제를 발생시켜 이와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조상원기자

2024 01 23 ()



무상교복 지원금 6.9% 인상...진단·처방 시급



[앵커]

이처럼 멀쩡한 교복이 마구 버려지고 있지만, 교복비 지원에 드는 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상교복 도입 5년째인 올해.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로 1명당 최대 33만 6,000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보다 22,000원이 늘었습니다.

6.9%가 올라 최근 몇 년 새 인상 폭이 두드러집니다.

예산은 원래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원도 살림이 빠듯해 강원도교육청이 87억 원을 모두 부담합니다.

[용석태/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 "실질적인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시도교복비 산정심사협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지원금은 확대됐지만 대상은 여전히 정장형이나 표준디자인 등 교복만 가능합니다.

조례에서부터 개별 학교 규칙까지, 대상을 교복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도 용인 등 일부에서는 지원 대상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을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더 많이 입는' 체육복을 사는데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미/경기도 용인시의의회 의원 :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교복보다는 체육복이나 생활복 지원에 관한 부분을, 형평성과 실효성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교복을 효율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엄기숙 hotpencil@kbs.co.kr

2024 01 24 ()

江原日報

01

썰매 성지 평창에 IBSF ‘췌 지사’ 설립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道-연맹, 오늘 활성화 협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내
봅슬레이 아카데미에도 합의
국제대회 지속적 개최 추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관통하는 ‘올림픽 유산’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아시아 지사가 설립된다.

강원2024를 통해 평창 슬라이딩센터가 2018평창의 가치였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IBSF 지사설립으로 명실상부한 아시아 썰매 종목의 헤드쿼터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보 페리아니 IBSF 회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전찬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24일 오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IBSF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에 IBSF 아시아 지사 및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또 평창과 중국 옌칭에서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창에서는 연 1회 스켈레톤 월드컵과 연 4회의 아시안컵이 열리게 돼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평창 슬라이딩센터는 6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전 세계 19번째, 아시아 2번째로 건설됐다.

강원2024취재단=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4 01 24 ()

02

썰매 성지 평창에 IBSF '亞지사' 설립 -1면에서 계속

이후 2018평창의 유산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동계 스포츠 저변이 열악한 국가의 선수들이 강원자치도, 평창군, 2018평창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훈련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평창에서

지원을 받으며 훈련해 온 캠페올 아그네스가 태국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과 강원도, 평창의 유산이 현실이 됐다는 내외신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23일에도 평창에서 훈련한 튀니지의 조

나던 로리미가 봅슬레이 은메달로 자국 역사상 동계 첫 메달을 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아시아 지사,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슬라이딩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15

‘순백의 감동 속으로’ 태백 눈축제 26일 개막

태백산국립공원·황지연못 등
31개 프로그램 요일별 테마
눈조각·썰매장 등 볼거리 풍성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제31회 태백산 눈축제'가 26일 개막한다. 태백산 눈축제는 'NOW OR NEVER 지금 여기, 태백(지금 여기, 태백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겨울 축제)'을 주제로 2월 4일까지 열흘간 태백산국립공원

과 문화광장, 황지연못 일원에서 펼쳐진다. 눈축제 기간 대체로 맑은데다 낮기온 1~4도의 적절한 겨울날씨가 예보돼 있어 성공축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막식은 27일 오후 2시 태백산국립공원 제1주차장에서 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진행된다.

도심 곳곳에는 눈축제 백미인 다양한 형태의 거대 눈·얼음조각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제31회 눈축제를 맞아 31개 프

그램을 구성, 요일별 테마를 적용해 다양한 콘셉트의 공연 및 이벤트가 펼쳐진다. 어린이들의 최애(가장 좋아하는)캐릭터인 '캐리와 친구들'도 눈축제장에 뜬다.

얼음썰매장, 눈미끄럼틀, 전통 야외 겨울놀이, 동계스포츠, 버스킹, 태백네컷, 슬리백 댄스챌린지, 줍깅챌린지, 대학생 눈조각, 태백산 전국 눈꽃등반, 백패킹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가득이다.

추억의 연탄불 등 먹거리장터와 함

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눈축제 기간 석탄박물관 등 주요 관광시설은 휴관없이 정상 운영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태백산 눈축제는 지역 홍보·발전과 함께 경제를 살피우는 효자 축제”라며 “기성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과 설레임을 안겨주는 만큼 태백에서 인생 최고의 겨울나만을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23일 철원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23.7도를 기록한 가운데 철원군 직탕폭포가 얼어붙는 등 북극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의 나이아가라폭포로 불리는 철원군 직탕폭포는 지난해 말 맹추위로 얼었다 1월 초 따뜻한 날씨로 녹았다. 그러나 이날 철원의 새벽 체감기온이 영하 28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탄강이 얼어붙으며 울거울 강추위를 실감케 했다. 이재용

‘빙하기 왔다’ 수도 얼어 터지고 차량방전 긴급출동 속출

춘천시 치과 수도관 동파 진료마비
“오늘만 150여건 출동” 보험사 분주

23일 북극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찾은 춘천시약사동의 한 주택가 골목, 담장과 콘크리트 외벽 사이에서 끊임없이 물이 새어나온다. 벽을 타

고 흘러내린 물줄기는 강추위에 얼어 붙어 커다란 얼음 기둥과 얼음바닥으로 변했다.

담장 넘어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모(여·75)씨는 “수도 열까봐 물도 살짝 틀어놓고 옷가지로 아끼 싸매듯이 공중 싸맸는데도 불구하고 또 터졌다”며 “집안이랑 화장실은 멀쩡한데 어

디서 문제가 발생한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토로했다.

같은날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한 치과는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로 오전 진료가 마비됐다. 오전 9시부터 치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예약자만 10명이었지만 치과에서는 물이 필수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대다수라 진료가

불가능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수도관 해빙을 위해 전문가를 불렀지만 오후 1시가 돼서야 수리가 완료됐다. 차량 방전이 잇따르면서 강원도내 보험회사들도 바빠졌다. A회사 팀장급 관계자는 “오늘 춘천에서만 한파관련 방전 출동만 150건에 달했다”고 했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오전에만 20건의 출동문의가 있었다”고 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오후에 시정에 일을 보러 가려

고 했는데 추워서 시동이 안 걸렸다”며 “LPG 차량이라 추위가 사그라들 때까지 방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우려가 있으니 온수를 약하게 틀어 방지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한파 관련 안내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재혁·양유근·이태윤·이정호

2024 01 24 ()

江原日報

03

“북유럽보다 더 추워” 한파에 외국인 관광객 깜짝

23일 오전 대관령의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찾은 외국인들은 강원지역의 추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보라와 폭설이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북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이날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찾은 라트비아 국적 일리나(38)씨는 “라트비아는 워낙 추운 나라라 어디 가도 추위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놀라운 추위”라고 경악했다. 손자의 경기를 보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는 밤(70)씨도 “스코틀랜드는 추위로 유명한 지역인데 강원도가 더 춥다”고

호소했다. 일리나씨와 밤씨가 경기장을 찾은 이날 강릉의 최저기온은 영하 10.9도를 기록했다. 대관령은 영하 20.2도, 평창은 영하 17.9도, 횡성은 영하 17.6도, 정선은 영하 16도로 개최 지역 전역에서 동장군이 위세를 떨쳤다.

반면 용감하게 추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프랑스에서 온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매니저 알렉시스(47)씨는 반바지만 입고 선수촌 주변을 돌아다니 이목을 끌었다. 알렉시스씨는 “강릉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추위도 반바지만 입고 생활할 수 있다”며 “추위도 멋진 경험”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강원2024추재단=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 21

아파트·주택 화재 불안 해소를

-사고 급증, 예방대책·대피 방안 마련해야

겨울철 도내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 가정 내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당수 화재는 인명사고로 이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아파트 화재도 증가 추세입니다. 화재로 인해 더 이상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다 쉽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피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일어난 단독주택 화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1일 화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80대와 7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같은 날 춘천시 동내면 단독주택에서도 불이나 9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5명 중 4명은 화재를 피해 탈출했으나, 90대 여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평창군 대관령면 한옥 호텔에서 불이 났으며, 원주시 문막읍 단독주택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횡성군 횡성읍과 갑천면 주택에서도 불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116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건으로 지난 2023년 같은 시기보다

각각 6건, 3건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화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원주시 문막읍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으나, 입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선 18일 오전 9시 16분쯤 횡성읍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세대 내부가 소실되고 그을려 6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올해 강원 도내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 증가했습니다.

개인 주택과 아파트 화재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방과 난로 등 화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조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도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화재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루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예방에서 대피까지 매뉴얼을 가정에 홍보하고, 비상 상황에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하게 대처할 행동요령을 알려 입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4 ()

/ 21

대형마트 규제 완화 장단점 살펴야

-새벽배송 허용, 부의역외 유출 및 소상공인 위축 초래

중앙정부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의 휴업 규제는 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쇼핑의 폭이 넓어지기에 영업시간 외 배송제한 및 공휴일의 무휴업 등에 다수가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골목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기에 마냥 반기기 어렵습니다. 지역 생산물인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경쟁관계여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조치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 의미 또한 있기에 변화도 우려하게 됩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그러지 않아도 온라인시장의 급격한 신장으로 타격을 보는 골목 점포와 시장 소상공인 측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농수산물을 비롯해 식품류를 취급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그만큼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비단 영세상인에게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외로 유출됨으로 인해 지역 내부의 경제 순환 고리를 약화하고 붕괴로 이어지는 파장을 부릅니다.

소상공인들은 몇년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위기가 커지는 시기에 이발 표가 나오자 정부가 대기업에 유리한

유통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큼니다. 임병철 춘천풍물시장상인회장은 “가뜩이나 전통시장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한다면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점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두삼 강원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다시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로 나뉘긴 하나, 전국 각지 400곳 넘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100여곳이 폐지됐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골목상권에 요긴한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금에는 매우 인색한 반면 대기업 대형마트 이익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아무리 소비자의 편이라 해도 생존이 걸린 문제로 반발하고 있기에 정부에 대한 반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와 직결된 작은 상권이 붕괴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1 24 ()

/ 19

공공 발주 유찰 속출, 공사비 현실화돼야 한다

건설업계가 비상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 압박으로 인한 자금난에다 공사비 상승,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관 발주 공공 공사들의 유찰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개찰한 한림대의 '강의실/PC실 내 조명 및 천장형 냉난방기 제어공사'는 시공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유찰됐다. 입찰에 참가한 2개 건설사 모두 발주기관의 예산을 초과하는 입찰금액을 투찰하면서다.

이에 한림대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를 낸 상태다. 문제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데 있다. 제2경춘국도는 2022년 실시설계

와 시공을 함께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에 부쳐졌지만 시공을 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유찰 사태를 겪었다. 사업이 장기화되며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1조800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은 심각하다. 여기에다 미분양 주택 증가, 인구 감소 현상 등으로 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주택건설시장의 장기 침체와 외지 건설업체들의 지역 건설 물량 독식으로 존립 기반을 위협받아 왔다. 대형 건설사업은 자본과 기

술력이 앞선 외지 대형 업체들에 일감을 대부분 빼앗겼다.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에서 나아가 제도적으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에도 고심해야 한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시장 원리에 맡겨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이유다. 우선 당장은 공사비가 현실화돼야 한다.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는 건설업체는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건설업계 위기는 주택경기 호황 때 분양가 폭리를 노리고 아파트를 무리하게 많이

지은 업계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금융 지원만 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우량과 불량기업의 구

사업 장기화 등 총사업비 대폭 증가 예상

제2경춘국도 시공 맡겠다는 업체 없어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 대책 서둘러야

분이 모호해진 불확실성 때문에 위기가 증폭됐다.

지금 건설업계는 극약 처방이라도 쓰지 않으면 공멸(共滅)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절박하다. 금융 당국은 억울한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균형 있고 엄정하게 적용하되, 일단 살리기로 한 기업은 강도 높은 자구(自救) 노력을 전제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은행들이 자금 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멸절한 기업까지 퇴출 대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업종에 미치는 경기 파급 효과가 상당한 건설업계가 무더기로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이 생명이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1 24 ()

/ 19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전통시장 살릴 방안은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의 도서 정가제 적용 제외 등 생활 밀접형 규제 개혁 방안들을 내놴다. 대부분 10년 이상 논란이 된 해묵은 과제인데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덜고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취지다. 민생 대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어려운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수준에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체감형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 소비자보다 원하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쇼핑물,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의 가파른 성장에 따른 유통시장의 급격한 지각 변동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상인, 유통전문가 대부분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문이어서 당장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더 썰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자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대형마트와의 상생 전략 등은 시급하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됐다.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 이 비용을 요금 인하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 정책 효과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통신사들의 ‘비용 감축-이익 보전’ 수단으로 악용됐다. 통신사들이 다 같이 돈을 안 쓰면서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호갱법’이 된 것이다. 웹 콘텐츠에 대해선 일반 도서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인데도 도서 정가제처럼 획일적으로 10% 할인율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활 규제 개혁은 입법을 요하는 사안이 많다. 여야가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